

지역별 색채감성과 도시의 색

10명의 사람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입니까?" 하고 물으면 각기 다른 색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백명, 천명, 만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기에는 보편적인 색채감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는 통용되는 사투리처럼 색에서도 그 지역만의 보편적인 분위기가 바로 풍토색이고 이러한 색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기호색이다. 나라마다 피부색깔, 얼굴 골격이 다르듯 습도, 일조량에 따라 민족감성에 맞는 색도 다르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은 한복, 단청 등에 많이 쓰이는 파랑·노랑·빨강·하양·검정의 다섯 가지 색으로, 햇볕이 강한 이탈리아나 아프리카 나라 등이 밝고 화려한 색을 좋아하는 것과 취향이 비슷하다. 반면 습도가 한국보다 2배나 높은 일본이나 하늘이 늘 잿빛인 영국, 독일 등은 탁한 색을 좋아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성능, 디자인이 뛰어나도 외국인의 감성에 맞지 않는 상품을 수출하면 거의 실패한다. 그 지역에서 주로 통용되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색의 차이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기호색의 차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도시들은 국경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지만, 여기에는 언어차이 만큼이나 명확한 색채의 국경이 존재한다. 유럽의 도시들은 각 나라와 지역마다 고유의 색으로 각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나 빨강, 노랑, 녹색, 파랑은 있지만, 좀 더 밝거나, 좀 더 어둡거나, 좀 더 화려하거나, 좀 더 탁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색감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김 경 인

환경요인과 색채감성 인간이 물체의 색을 볼 때는 주변 환경(온도, 습도, 조명광의 강도 등)이나 물체 자체의 광학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같은 색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광원의 변화가 지각색과 선호색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이러한 색채감성의 지역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자연광의 세기, 습도, 온도 등이 있으며, 지역별 환경요인의 차이는 인간이 지각하고 선호하는 색의 명도, 채도, 색상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빛의 세기(그림 1,2) 광원의 조도가 바뀌면 시각의 휘도순응이 일어나게 되고 색채감각도 변화한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조도가 떨어져 색을 어둡게 느끼고, 빛의 세기가 강하면 조도가 높아져 색을 밝게 느낀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 자연광의 조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밝은 색에 순응하게 되고,

빛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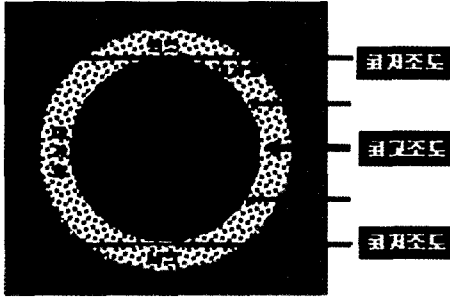


그림 1 위도별 자연광의 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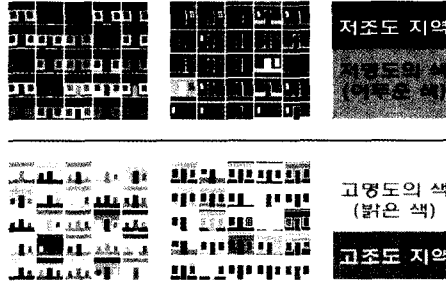


그림 2 자연광세기에 따른 명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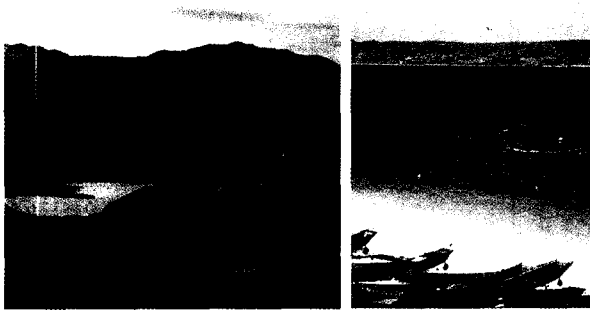


그림 3 습윤한 지방과 건조한 지방의 하늘색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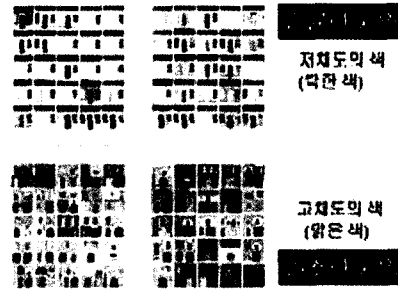


그림 4 습도차에 따른 채도변화

조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어두운 색에 순응하게 되는 색채의 기호심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습도(그림 3,4) 대기 중 수증기 양(습도)에 따라 사람들의 색채지각심리는 청색계 또는 탁색계에 익숙해지기 쉽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자외선을 잘 흡수하므로 흐린 날 자연광은 자외선 복사량이 감소하고 채도를 떨어지게 한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밝은 고채도의 청색계를 선호하고, 습윤한 지역에서는 어두운 저채도의 탁색계를 선호하는 색채기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온(그림 5,6) 지역별 기온차는 사람들의 감색능을 통해 한색계와 난색계에 대한 생리, 심리적인 적응과

결부된다. 위도에 따라 적도지방은 장파장의 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파장 쪽의 색을 잘 연색시켜 장파장의 색(적색, 주황색, 노랑색 등)에 대한 심리적인 적응을 높여준다. 또 북극지방은 단파장의 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파장 쪽의 색을 잘 연색시켜 단파장의 색(녹색, 청색, 청자색 등)에 대한 심리적인 적응을 높여준다.

도시색의 감성특성 이상의 환경요인을 통해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의 지역별로 나타나는 색채감성구조와 그 원인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영국은 위도 상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광의 세기가 약하여 같은 색이라도 약간 어두운 톤을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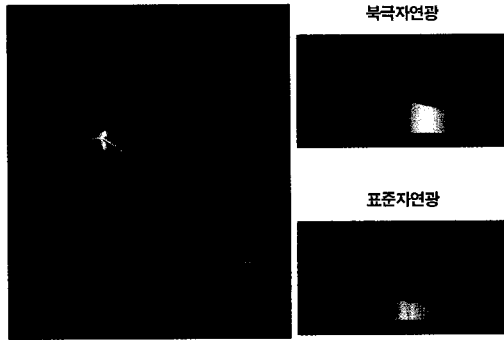


그림 5 자연광 스펙트럼과 북극지방의 자연광 그림 6 온도차에 따른 색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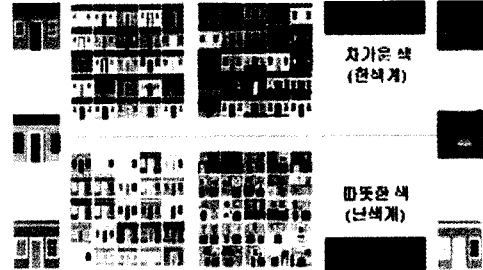


그림 6 온도차에 따른 색상의 변화

고 있다. 해양성 기후로 인하여 습도가 높아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차이나타운의 빨강색이 중국 본토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어두운 톤을 띄고 있다. 영국처럼 습도가 높은 기후에서는 채도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강조색은 오히려 채도가 아주 높은 색이 사용된다. 런던의 빨강버스는 바로 이러한 색채사용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위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영국보다는 밝은 색이 사용된다. 건축물 외관은 약간 명도가 높고, 차양막의 색도 영국의 것보다 밝고 화려한 톤을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도시의 색이 어두워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위도차이나 습도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알프스산의 영향이다. 우리가 산에 가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진다고들 한다. 실제로는 산이 높아 뜨고 지는 해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조량이 적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사용되는 색채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에 익숙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위도 상으로 가장 남쪽에 있어 자연광의 세기가 세므로 색이 밝게 보이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 친숙하게 되어 밝은 색을 선호하는 색채감성을 갖는다. 프

랑스보다 위도가 낮아 프랑스 보다 밝고 화려한 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광 속에 주황색이 많이 들어 있어 다른 나라에서 사용된 색보다 노랑끼가 많은 색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영국과 기후가 유사하여 실제로 색채감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일본이 영국의 문화를 수입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은 습도가 높아 채도가 낮은 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四十茶白鼠"라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40가지 갈색과 100가지 회색으로 표현되는 Greyish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맑고 청명한 하늘에서 느껴지는 건조한 기후조건과 여기서 보여지는 밝고 화려한 색조들을 사용하는 색채감성의 경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화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색채감성으로 해석하자면 판을 겹쳐서 찍게 되면 색의 채도가 떨어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풍경을 묘사하는 담채기법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의 풍토를 잘 묘사하는 우끼요에(판화)가 발달하게 되었다.